

아롱다롱 아름다워

중국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예술작품으로 승화

- 강중호교수 2,600 점 베개머리무늬 수집, 조선족 민족특색 짙은 베개머리무늬 300 여점 전시

4월 17일 오전, 중국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전시회가 연변도서관 1층 대청에서 개막된 가운데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아롱다롱 아름다운 베개머리무늬들이 독특한 예술작품으로 승화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중국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전시회는 연변대학 미술학원 전임 서기 강중호 교수가 10여년간 민간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베개머리무늬 2,600점 가운데서 조선족 민족특색이 뚜렷한 베개머리무늬 300여점을 엄선해 마련한 것이다.

베개머리무늬란 베개 양쪽의 정사각형이나 원형의 장식무늬로 대부분 자수나 채색 천조박으로 무어져있는 부분을 말한다. 베개머리무늬는 비단과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재질의 베개가 점차 나타나면서 생겨난 것으로 서한시대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

명나라, 청나라 이후 도자기로 만든 베개가 점차 몰락하고 천 재질의 부드러운 베개가 민간에서 점차 도자기 베개를 대체하면서 베개머리무늬의 발전도 전성기를 가져왔다. 베개머리무늬는 장식기능뿐만 아니라 복을 비는 소원, 일상생활과 민간신앙 등 민속문화 특징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베개머리무늬에 대한 연구는 민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전파하며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중호교수에 따르면 조선족 베개머리무늬는 그 양식, 색채, 도안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민족 베개머리무늬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우선, 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양식은 주로 아름다운 여가까지 색깔의 천조박들의 무늬로 이루어졌는데 천조박 무늬 무늬는 다른 민족 베개머리무늬중에서 극히 드물다. 조선족 베개머리무늬는 도안에 추상적인 기하학적 무늬를 많이 사용하고 기하학적 형태와 색깔의 원단을 두께, 네개씩 이은 등 구성 형



▲ 중국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전시회에서의 강중호교수
▲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전시회를 둘러보며 짙은 향수와 정감을 느끼고 말했다.

리 민족의 베개머리무늬가 아롱다롱 참으로 아름다우면서 '행복, 건강' 등 글자들을 자수로 새겨넣은 베개머리무늬들을 보니 부모님 세대가 생각난다면서 옛 추억과 함께 짙은 향수와 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중호교수는 조선족 전통문양의 베일은 아직 다 벗겨지지 않았다면서 연변이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선족 전통문양이 문화적인 명칭과 관광 브랜드로 부상할 발전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년간 실천된 조선족 전통공예와 민속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연변도서관의 관장 김혁은 공공도서관은 한 도시문명의 창구로서 한 도시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강조, 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전시회와 같은 다원화적인 문화의 전시로 균중들의 심미의식과 종합적 문화자질을 제고하고 균중들의 정신

문화생활을 풍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의 인정과 정신적인 힘을 떠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전시는 뚜렷한 지역 특색과 풍부한 인문 내포가 있으며 로동인민들이 생활 가운데서 창조한 보귀한 예술적 재부이고 민족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이라고 말했다. 김혁 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발걸음하는 데 유리하며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민족단결의식을 발굴, 선양하는 데도 리롭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중국조선족 베개머리무늬 전시회는 연변도서관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장백산조형예술연구원과 연변환경예술조형연구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대학 미술학원에서 기술 지원을 했다.

전시회는 4월 25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지며 전시회 기간 동안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안상근 김파 기자



[전망대]

지쳐가는 대련영박의 약점을 노려라!

석가장공부팀과의 맞대결로 첫 홈승을 거두고 6위로 성큼 올라선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이 4월 21일 오후 3시 반에 대련시 사어만 프로축구장에서 5승 1무 16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련영박팀을 상대로 원정경기를 펼치게 된다.

지난해 올림리그에서 2위로 갑급리그에 진출한 대련영박팀의 전신은 2021년 12월에 설립된 대련독행팀(후에 '대련지행'으로 개명)이었다. 올 시즌에 들어와 대련영박팀은 팀진영을 대대적으로 조절하였는데 지난해 뛰어난 절반 이상의 선수들을 내보내고 영상집(39번), 려봉(21번), 비에(28번), 려탁의(38번) 등 전대련인팀 선수들을 포함한 15명의 국내 선수, 커터닉(44번), 은바로(7번), 로버슨(6번) 등 용병을 영입하였다. 현재 팀 몸값은 246만유로, 광서평과하료, 운남옥곤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시즌 첫 4개 라운드를 4연승으로 단장한 대련영박팀은 비록 5라운드에서 불산남사팀과 빅으면서 2위로 내려앉았으나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슈퍼리그 진출의 강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대련영박팀을 눈박아보고 있는 팀은 연변팀뿐이 아니다. 이제 곧 대련영박팀과의 경기를 앞둔 팀들은 모두 불평한 시선이다. 그러나 아무리 날랜 비이라 해도 '밤을 잡는 포수'는 나오기 마련이다. 범의 승세를 장악하고 행동로선을 연구한 '로련한 포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련영박팀의 전 6라운드 경기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청도홍사, 소주동우, 광서평과하료, 흑룡강빙성, 불산남사 등 팀들과의 경기는 4-4-2 전형으로 경기를 진행하였고 료녕철인팀과는 3-4-3 전형을 구사했다는 점, 그리고 처음 4경기는 모두 1대 0으로 승리하고 5라운드는 2대 2, 6라운드는 3대 2로 빅거나 이겼다는 점이 주목된다. 거기에 승전욕이 강하고 고정된 주력진영으로 운영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주의할 것은 제 5, 제 6라운드 경기에서 먼저 실점하고 후에 겨우 동점골을 뽑거나 역전승했다는 점이다. 먼저 불산남사팀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2골을 내주고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려탁의의 두골로 겨우 비겼다. 료녕철인팀과의 경기에서는 2차례 뒤진 상황에서 후반전에 출전한 왕선홍이 87분과 경기 추가 시간에 2골을 직접시키면서 힘들게 역전을 일궈냈다.

다 알다 싶이 불산남사팀이나 료녕철인팀 등 두 팀은 강팀이 아니다. 연변팀과 실력이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는 팀인데 대련영박팀이 이들을 상대로 힘든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대련영박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그만큼 대련영박팀의 료령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기전술이 치밀한 공방전에 적용하기 힘들고 주력선수들의 체력소모로 팀 전체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실 대련영박팀도 석가장공부팀처럼 선수들의 연령이 불균형하다. 려탁의, 화효강, 모우결 같은 젊고 전도유망한 선수들도 있지만 주력진영 대부분은 30대 중반 혹은 그 이상이어서 강도가 높은 경기를 연속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에 부친다는 말이다. 전 6라운드 경기 선발 출전 선수 평균 연령은 30.8세로 석가장공부팀보다도 더 료령화인데 운이 좋게도 5승 1무를 거두다 보니 강팀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구락부와 팬들의 기대치도 하늘을 치솟는 중이다.

리그 1/5 일정을 소화한 상태에서 영상집, 조학빈, 비에, 손백, 진봉상, 최중개와 문지기 수유결(41세) 등 7명의 주력선수가 34세 이상이고 5, 6경기를 내쳐 뛰었다는 것은 팀의 선수층이 고르지 못하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이런 시점에서 연변팀을 살펴보면 비록 점수상에서는 7점이나 차이가 나지만 리세빈, 왕박호, 허문광, 림태준, 현지건 등 U21 선수들과 리달, 왕성래, 리금우, 리강, 리룡, 서계조 등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이 주력진영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천금같은 우세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석가장공부팀과의 경기에서 연변팀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8.8세였으나 왕박호, 리룡, 리강, 현지건으로 아블레다, 리호결, 한광휘, 리세빈을 교체하면서 후반전 평균 연령은 26.6세로 젊어졌는데 이것이 석가장공부팀을 이길 수 있는 체력과 속도의 유력한 보장으로 되었다.

만약 연변팀이 이보-로난, 이보-리세빈, 이보-왕박호 등 이보에서 시작되는 공격망을 최대한 넓혀 상대방의 수비선을 무차별 괴롭힌다면 상대의 '료령화' 수비선은 체력적으로 열세에 빠지게 되고 몸이 무거운 41세 로장 수유결이 지키는 골문도 틀서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대련영박팀이라는 '강팀'의 금신을 깨고 무패행진을 저격하는 장거가 연변팀의 몫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4월 14일, 제 2부심 사려군이 경기에서 심판을 보고 있다.

지난 14일, 2024 시즌 중국 슈퍼리그 제 6라운드 상해해항팀 대 산동태산팀의 경기에서 여자 국제급 부심인 사려군이 제 2부심으로 나서면서 국내 첫 남자축구 최고 프로리그를 맡은 여성 심판에 등극했다. 1989년생인 사려군은 아시아축구련맹의 뛰어난 부심이다. 2022년

/신화사

대형 조선족 상황음악화면극 <영원한 진달래> 4월 13일 화려한 귀환

일전 연변 조선족 문화를 배경으로 한 대형 상황음악화면극 <영원한 진달래> 이 반년간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쳐 4월 13일, 연길공룡왕국 금두예술극장에서 2024년의 첫 공연을 맞이한 가운데 공연장은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연길공룡왕국과 국내 일류 창작팀이 함께 제작한 이 화면극은 소리, 무용, 화면, 음향 효과가 어우러진 음악성으로 관객들에게 연변 조선족의 민족풍채와 문화매력을 선보였다.

전반 화면극은 한 조선족 가족의 5세대에 걸친 운명적인 이야기를 주요 줄거리로 하고 프리미엄 혁신의 극장무대설비를 리용해 민족 전통가요, 무용, 곡예 등 공연 요소를 융합하여 조선족의 이주사로부터 56개 민족 대가정의 한송이의 꽃으로 빛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지향과 독립자주적이고 혁신적이며 조국을 열애하는 애국



▲ 대형 조선족 상황음악화면극

정신과 혁명정신, 민족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무대는 무용에 대해 업그레이

드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통무용과 여러가지 첨단과학기술인 소리와 빛, 기술 그리고 몰입식 투영 기술을 응

용, 다원화 융합을 거쳐 돌파적인 시도로 보다 더 화려해진 공연 성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동시에 민족문화를 더욱 잘 융합시키고자 극단에서는 조선족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학자들을 섭외해 작품의 창작에 동참시켰다. 특히 '신혼의 밤', '리별의 수연(寿宴)' 등 장절에서 조선족의 전통민속을 잘 재현했다.

업그레이드된 첫 공연은 아름다운 공연 화면, 풍부한 이야기와 대량의 첨단과학기술 설비의 완벽한 조화로 현장 레인과 관객들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대형 상황음악화면극 <영원히 지지 않는 꽃(영원한 진달래)>은 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로 연길공룡왕국 금두예술극장에서 관객들에게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시각 성연을 선물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리진기자



국내 최초! 남자축구 리그에 여성 심판 등장

- 사려군, 남자축구 최고 프로리그 누빈 국내 첫 여성 심판으로



▲ 4월 14일, 제 2부심 사려군이 경기에서 심판을 보고 있다.

지난 14일, 2024 시즌 중국 슈퍼리그 제 6라운드 상해해항팀 대 산동태산팀의 경기에서 여자 국제급 부심인 사려군이 제 2부심으로 나서면서 국내 첫 남자축구 최고 프로리그를 맡은 여성 심판에 등극했다. 1989년생인 사려군은 아시아축구련맹의 뛰어난 부심이다. 2022년

/신화사